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2월 26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6장 8-13절

설교제목 :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제사의 목적을 정리하면서, 제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부정된 상태를 정결의 상태로 회복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섯 가지 제사를 다 다루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다섯 가지 제사가 반복됩니다. 레위기 1:1-6:6까지 다섯 제사를 다루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레위기 6:8-7장까지 5대 제사가 반복됩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레위기 1:1에서 6: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서술된 제사법입니다.(레1:2) 반면 레위기 6:8-7장까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서술된 제사법입니다.(레6:9) 따라서 레위기 1-7장까지 다섯 가지 제사를 두 번 반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세 번을 강조합니다.(레6:9, 레6:12, 레6:13)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번제단 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직접 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레9:22-24) 하나님이 주신 불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꺼뜨리지 말라는 것은 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번제단은 야외에 있습니다. 저녁에 마지막 소제를 드리고, 다음 아침의 소제를 드릴 때까지 계속 피워져 있습니다. 야외의 번제단의 숯을 꺼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꺼지기 쉽습니다. 밤에는 이슬이 내리고, 몇 년마다 폭우가 쏟아지고 모래 폭풍이 불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벧전2:9)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제사장직을 대신하여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제사장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심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행2:3)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셨습니다.(고전3:16)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 즉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게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19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고 합니다.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소멸하다는 단어입니다. ‘소멸하다’로 번역된

‘스벤뉘미’는 ‘불을 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살전5:20) 성경에서 예언은 항상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연관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눅24: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

본문에 ‘뜨겁지’로 번역된 헬라어가 ‘불을 붙이다’란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수동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뜨거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21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합니다. ‘범사에’란 앞서 이야기한 모든 예언들, 즉 모든 말씀입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확고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맹수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으르렁 거리는 모습입니다. 결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꼭 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마13:18-23)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사활은 주일성수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참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레6:9, 레6:12, 레6:13/레9:22-24)
- 2)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약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봅시다.(행2:3/고전3:16)
- 3)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강조합니까?(살전5:20)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있는지 서로 함께 고백해 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